

# MAPS



HERITAGE



MAPS MAGAZINE  
FASHION MANIFESTO FOR ALL HUMAN KIND  
ISSUE 81 DECEMBER 2014  
"HERITAGE"

6,900 KRW 12  
9 771976 063900

# HA CHONG HYUN

INTERVIEWER / KWAK JUYON  
 PHOTO BY / OH JUNESEOP

해를 거듭할수록 단색화를 향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사조, 단색화(Dansaekhwa)는 더 이상 모노크롬의 번역어가 아닌 고유명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70년대 단색파 주역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얼마 전 뉴욕 개인전 오프닝을 마치고 돌아온 작가 하중현을 만났다.

서양의 모노크롬과 달리 한국의 단색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양에서는 한국의 단색화를 모노크롬 혹은 미니멀이라고 분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에 적용해도 합당하지 않다. 단색화는 한국만이 하는 특수한 것이다. 우리 단색화의 특성 중 하나는 작품의 물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마대 캔버스를 이용하고, 다른 작가들은 한지를 쓴다든가 커다란 붓으로 줄을 긋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각자 도구와 재료를 만들어 작업한다. 대체로 30년대 태생인 단색화 작가들은 같은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 그렇지만 품은 생각과 하는 작업에는 각기 다른 방향이 있었다. 결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후에 이들의 작품을 모아보니 하나의 경향이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의 이름, 단색화는 그에 맞는 서양의 용어가 없었기에 붙이게 됐다. 이것을 국제갤러리가 주도적으로 세계화시키고 있다.

화면 위를 붓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뒷면에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 어떤 발상으로 시작했는가?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설치 작품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종착역이 아니라고 느꼈다. 결국 평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하던 기하학 추상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평면으로 가길 원했다. 그래서 회화의 형식 자체를 뒤집어서 화면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때는 궁핍한 시절이어서 제대로 된 캔버스는 값이 비쌌다. 해외에서 원정물자가 오곤 했는데 곡물을 실은 화물선 바닥에 마대가 깔려 있었다. 배가 돌아갈 적에 사람들이 마대를 가져다가 남대문 시장에 팔았다. 나는 그것을 사서 캔버스로 만들었다. 물감을 마대 뒷면에서 밀어내면 성긴 틈 사이로 물감이 스며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다시 밀어낸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마대와 물감의 물성이 살아나게 된다. 단순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여러 과정이 쌓인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하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해서 화면을 메워나간다. 하지만 나의 작업에서는 마대와 물감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삼박자로 조화되어 작품이 만들어진다.

작품들의 색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서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황토색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색이다. 옛날 집은 전부 황토색

이었다. 요즘에는 외국에서 온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기 몸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다. 황토색, 백색, 청색, 회색은 초가집, 한옥 등 우리 주위에서 채집한 색이다. 이러한 색의 그림은 방에 걸어도 옛날 가구와 잘 어울리고 어디에 있던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홍대 재직 시절,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하회마을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 작품이 여기에 다 있다고 했었다. 내 작품의 색이 모두 전통과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왔을 것이다.

74년부터 단색화 시리즈 <접합>을 시작했다. <접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대와 물감, 즉 물질과 물질이 만나고 여기에 작가의 행위가 더해져서 완벽한 접합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작가가 인위적으로 화면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물감이 각자의 얼굴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마대를 뚫고 나온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작품에서 마대와 물감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다. 물질 자체가 작품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작가는 단지 일부분으로서만 개입한다. 마대와 물감 그리고 작가의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작품이 나온다.

2009년도까지 35년에 걸쳐 <접합>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어떤 과정이었는지 궁금하다.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 어느덧 35년이 가버렸다. 거기에 심취하고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토록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지나온 발걸음이다. 굉장히 힘든 길을 나는 긴 세월 걸어왔다.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접합> 시리즈를 종결하게 되었는가?

먼저 간 사람들 중에 나를 가르쳐줄 만한 교과서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어려웠다. 몇 가지 색깔만 가지고 도를 닦는 심정으로 살았다. 그렇게 삼십년 연구했고 작가로서 마지막 정리 단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는





접합 85-(A), oil on hemp cloth, 160x120cm, 1985

것과 다음 것이 상충되지 않고 연결이 될 것인가 고민했다. 그리하여 큰 틀을 허물지 않으면서 <이후접합> 시리즈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는 한쪽에서 발을 떼면서 다른 한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원로 작가에게 새로운 조형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모험이자 위험일 것이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변화를 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내가 그런 심정이었다. 저승에 가면 열라대왕이 너는 명색이 화가인데 평생 색깔도 못 써봤냐고 나무랄 것 같았다. 그래서 후회 없이 물감을 마음대로 써보고 가자고 결심했다. 물론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밀져도 본전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이 중요하다.

일평생 미술계에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미술협회 이사장도 했고 홍익대 미대 학장도 했고 정년퇴직을 하고는 서울 시립미술관 관장도 했다. 문화행정, 교육행정, 미술관 관장 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 중심에서 미술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그림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오늘 날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이후접합> 시리즈를 하면서 작가로서 못해본 것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예술은 궁극적으로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유화는 시간을 들여서 건조시켜야 하지만 묵은 김치처럼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맛이 있다. 반면 아크릴은 금방 마르기에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으나 유화만큼 깊은 맛이 없다. 유화가 옛날 수공업 시대의 것이라면 아크릴은 대량 생산 시대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요즘에는 작품의 경향이 일종의 아크릴화됐다.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판매를 전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술이 작품이 아니라 장식품처럼 놓이는 것이다. 유행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잠깐 지나

가는 것인데 가끔은 시대를 대변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술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다. 처음에 막무가내로 달리면 나중에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마련이다. 작품을 하다가 생활이 힘들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작품을 하고 또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다. 지그시 끌고 가는 기질이 필요하다. 이쪽이 나온가 저쪽이 나온가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자기 것을 찾지 못한다. 나는 팔순에도 여전히 앞만 보고 가고 있다. 그러나 내 작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미술계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내게 있었다. 그래서 퇴임할 때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하중현 미술상'을 만들었다. 작가상뿐 아니라 평론가상도 수여한다. 우리나라는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평론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절감했다. 미술상을 개최한 지도 어언 13년이 지났다.

젊은 예술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갈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건 서구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공통된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옛날에는 동양과 서양이 현격히 달랐지만 요즘은 급속도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류를 따르다가는 자칫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가야 한다. 누구는 처음부터 인정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이 어려운 것이다.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정도면 족하다. 기능에만 얽매이면 그림만 잘 그리는 기능공이 된다. 예술은 기능이 아니다. 그 밑에 심오한 철학이 깔려 있다. 잘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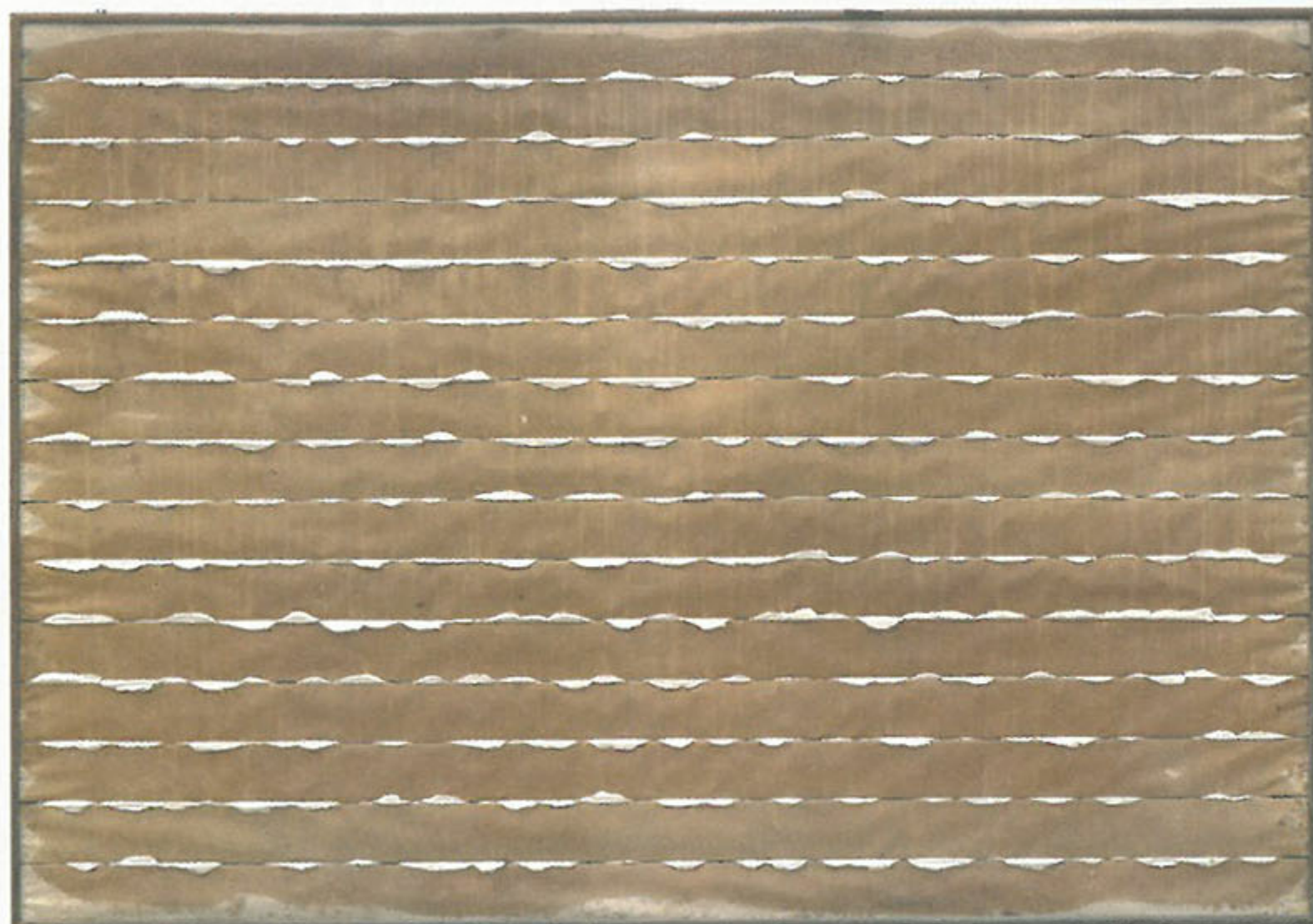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전시를 펼치고 있다.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11월 7일부터 한 달동안 뉴욕의 블룸&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12월 중순에는 상하이 소재 갤러리에서 단색화 그룹전에 참여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후접합> 시리즈는 올해로 4년 됐는데 앞으로 6년 이상을 더 할 생각이다. 이대로 10년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conversation 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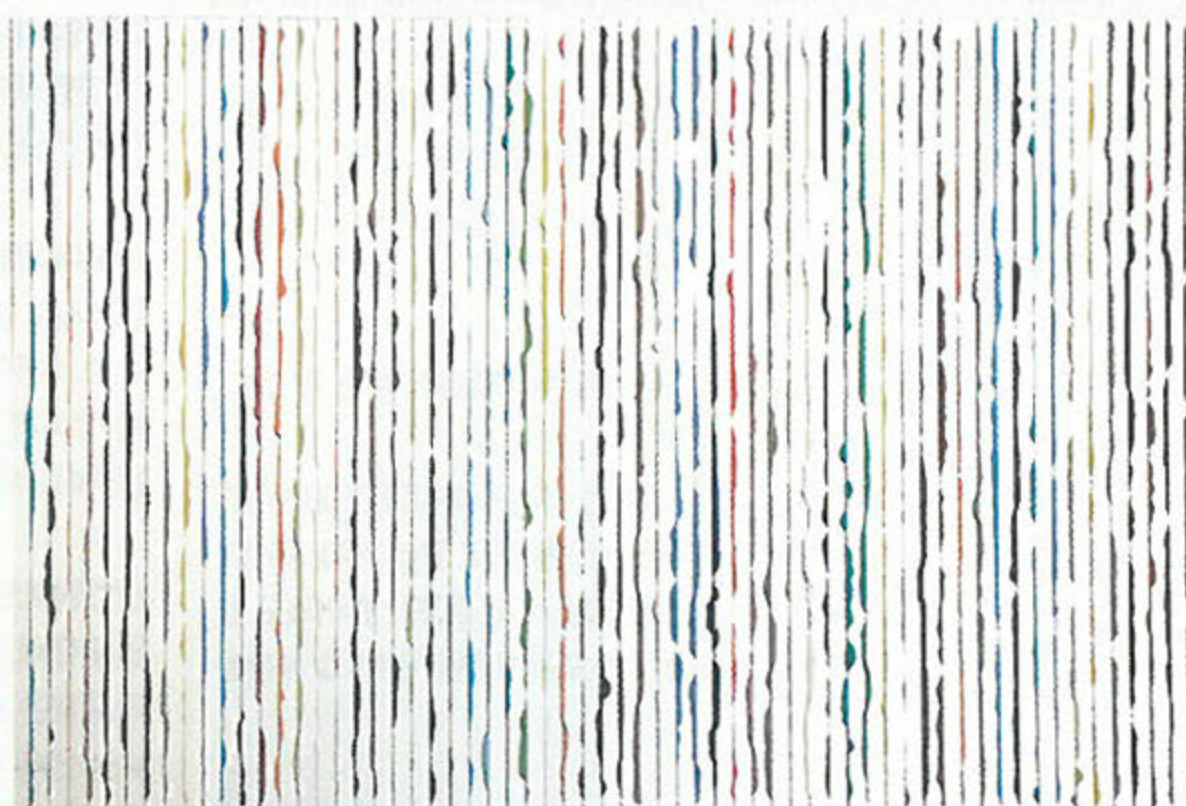
이후접합 11-2, oil on canvas, 180x120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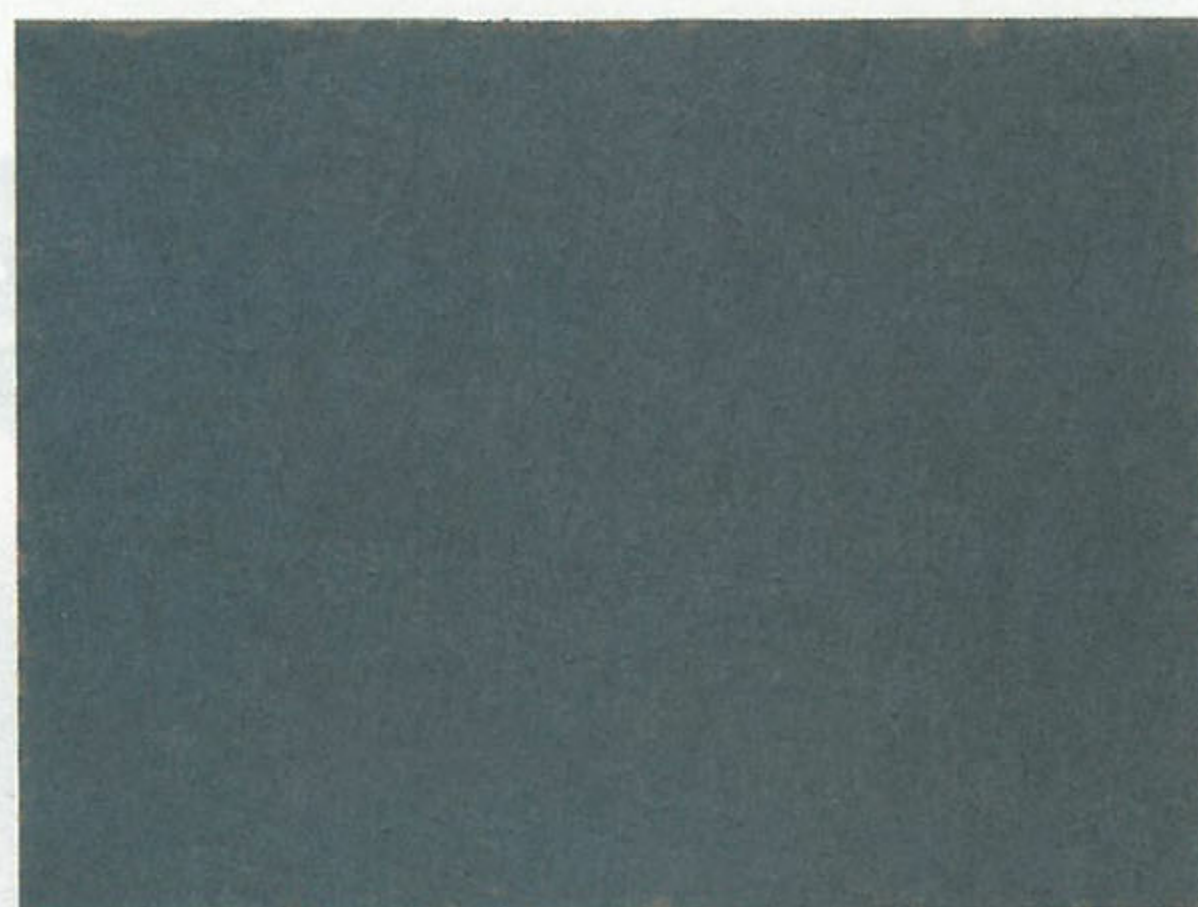
점합, oil on paper, 120x175cm, 1974



점합 74-25, oil on hemp cloth, 200x100cm, 1974



이후점합 11-6, oil on mirror, 120x180cm, 2011



점합 87-101, oil on hemp cloth, 194x260cm, 1987